

연구소 소식

육아정책연구소 2023년 KICCE 정책토론회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2023년 총 13회에 걸쳐 KICCE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KICCE 정책토론회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연구들의 정책기여도를 제고하고 연구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정부부처, 국회, 학회 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여 개최되었다.

2023년 KICCE 정책토론회 개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일시	주제	행사사진
2023년 제1차 KICCE 정책토론회	5월 18일(목)	미래세대 영유아를 위한 기후변화 정책의 방향과 과제	
2023년 제2차 KICCE 정책토론회	7월 28일(금)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를 위한 유아 학교를 제안하다	
2023년 제3차 KICCE 정책토론회	10월13일(금)	장애영유아보육이 그리는 유보통합 이야기	
2023년 제4차 KICCE 정책토론회	10월 26일(목)	영아유기 예방 및 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구분	일시	주제	행사사진
2023년 제5차 KICCE 정책토론회	11월 7일(화)	모두가 행복한 유치원을 위한 교육 과정과 방과후 과정 운영 방향 및 정책과제	
2023년 제6차 KICCE 정책토론회	11월 10일(금)	유아 AI, SW교육, 논쟁과 해법 은?: 안전 vs. 창의 프레임 넘어서 기	
2023년 제7차 KICCE 정책토론회	11월 16일(목)	포스트휴먼 유아 그리고 디지털: 모두를 위한 페다고지	
2023년 제8차 KICCE 정책토론회	11월 17일(금)	서울 유아교육 이야기: 유아교육비에서 유아학교까지	
2023년 제9차 KICCE 정책토론회	11월 21일(화)	유보통합의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 토론회	
2023년 제10차 정책토론회	11월 22일(수)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이직 및 처 우개선	
2023년 제11차 정책토론회	11월 28일(화)	청소년부모 양육역량 지원 방안	

구분	일시	주제	행사사진
2023년 제12차 정책토론회	12월 11일(월)	보육교직원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	
2023년 제13차 정책토론회	12월 15일(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영유아 가구 및 발달 변화	

2023년도 제2차 KICCE 육아정책 연구생태계 네트워크 포럼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11월 22일(수) 오후 2시 정동1928 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변화의 시대, 육아정책의 방향성 재정립을 위한 실천적 연구를 논한다’를 주제로 「2023년도 제2차 KICCE 육아정책 연구생태계 네트워크 포럼」을 개최하였다. 포럼은 이슈 연구 발표, 정책 공모전 결과 보고, 연구이슈 빅데이터 분석 결과 보고, 관련 기관 주요 관심 의제 발표 및 원탁 토론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6개 학회(한국가족학회, 한국모자보건학회, 한국보육지원학회, 한국아동학회, 한국유아교육학회, 한국육아지원학회), 3개 지역연구기관(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그리고 4개 언론기관(CBS, EBS, SBS, 브릿지경제)이 참여하였다.



2023년 제3차 육아정책 심포지엄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12월 12일(화) 오후 2시 서울 중구 유네스코회관에서 「2023년 제3차 육아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본 심포지엄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육아정책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하여 저출산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심포지엄은 육아정책연구소 구자연 부연구위원이 사회를 맡았으며, 2개의 주제발표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는 육아정책연구소 조미라 부연구위원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활용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발표를 통해 부모(근로자)와 기업(사업주) 각각의 관점에서 제도 이용현황 및 경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 김동훈 연구위원이 '일·가정 양립을 위한 시간지원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하여, 출산전후휴가제도, 육아휴직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유연근무제도 등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시간 지원제도 현황을 개괄하였다. 종합토론은 육아정책연구소 최윤경 기획조정본부장이 좌장을 맡고 3명의 토론자가 참여하여 진행되었다.



2023년 제4차 육아정책 심포지엄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2023년 12월 14일(목) 오후 2시 육아정책연구소 대회의실에서 ‘영유아 양육지원 고도화를 위한 전제: 양육지원 정책의 체계화 및 데이터 기반 정책 강화’을 주제로 「제4차 육아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본 심포지엄에서는 2개의 주제발표가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표는 육아정책연구소 이정원 선임연구위원이 ‘영아 양육지원 현황과 체계화를 위한 정책 요구’를 주제로 영아기 양육지원 정책에 대한 영유아 부모와 전문가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정책 체계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발표는 육아정책연구소 도남희 선임연구위원이 ‘영유아데이터 통합 현황과 정책 과제’를 주제로 영유아 데이터 현황과 문제점, 통합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2부 종합토론에는 서울신학대 황옥경 교수, 돌봄정책&젠더 연구소 안현미 소장, 가천대 안재진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미애 연구위원이 참여하였다.



2023년 KICCE 정책세미나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2023년 11월 7일(화) 명동포스트타워 21층 스카이홀에서 ‘아버지의 행복한 육아를 위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과제’라는 주제로 KICCE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본 정책세미나는 육아정책연구소 「평등한 돌봄권 보장을 위한 자녀돌봄 시간정책 개선방안 연구(II): 남성의 돌봄권 보장을 중심으로」연구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 조미라 부연구위원이 평등한 돌봄권 보장을 위한 자녀돌봄 시간정책 개선방안 연구 1차년도 서베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고용형태에 따른 남녀의 자녀돌봄 시간과 부부의 돌봄배분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이현아 교수가 개발한 아빠 육아달인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과정 및 프로그램에 대해 발표하였다. 세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 박은정 부연구위원이 ‘돌봄자’, 새로운 아버지됨으로의 전환과 시간정책을 주제로 올해 연구 결과 중 FGI 분석, 소셜 빅데이터 분석, 독일 정책 담론 분석의 일부를 발표하였다. 육아정책연구소 김은실 유아교육·보육정책연구실장이 좌장을 맡아 주제발표에 대한 3명의 지정토론과 종합토론을 진행하였다.



2023년 제2차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구축 포럼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2023년 11월 17일(금)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전경련 회관 루비홀에서 2023년 제2차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구축 포럼을 개최하였다. 본 포럼은 LH 수탁연구과제인 「공공택지 내 아이돌봄 인프라 개선을 위한 통합돌봄 거점 구축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개최되었으며, LH가 주최하고 육아정책연구소와 정림건축에서 주관하였다. 지난 7월 1차 포럼에 이어 개최된 본 2차 포럼은 ‘돌봄칸막이를 넘어선 미래 돌봄, 아동통합돌봄거점의 단계적 실현을 말한다’라는 주제로,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구축에 있어 단계적 실현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본 포럼에서는 권미경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이 ‘아동통합돌봄거점(LH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조성 모형안’에 대해, 윤재석 수석전문위원(인천시의회)이 ‘아동통합돌봄거점(LH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법적·제도적 기반 조성’에 대해 그 동안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였다. 이어 우지성 본부장(정림건축)이 ‘아동통합돌봄거점(LH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설치 방안’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2023 유아교육 포럼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지난 11월 24일(금요일) 오후 2시 서울역 KTX 대회의실에서 ‘유아 사교육에 대한 우리의 책무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2023 유아교육 포럼」을 개최하였다. 본 포럼은 교육부 및 전국 시도교육청 수탁연구과제인 ‘2023 누리과정 포털 운영’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되었으며,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 주최,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주관하였으며, i-누리 유튜브에서 생방송 송출하였다. 첫번째 주제발표는 ‘조기 사교육이 유아에게 미치는 영향 분석 및 대응 과제’를 주제로 박은혜 교수(이화여대 유아교육과)가 맡았고, 이어 임동선 교수(이화여대 언어병리학과)는 ‘조기 영어교육의 문제와 뇌 발달’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마지막으로 ‘영유아 사교육 및 영어학원 부작용’을 주제로 최나야 교수(서울대 아동가족학과)가 발표하였다.



2023년 제3차 장애위험영유아 지원을 위한 연구 포럼

육아정책연구소는 12월 8일(금) 오전 10시 명동포스트타워 스카이홀에서 '영유아 장애 위험 선별 도구 개발과 가족 중심 지원'을 주제로 「2023년 제3차 장애위험영유아 지원을 위한 연구 포럼」을 개최하였다. 본 연구포럼은 2022년부터 4개년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장애위험 영유아 조기 발견 및 발달지원 종합대책 방안' 연구의 2차년도 연구인 '부모용 선별도구 개발 및 가족 지원 방안' 수행의 일환이며 연간 연속 시리즈로 기획되었다.

첫 번째 발표는 한국아동학회장이인 전효정 교수(동아대학교 아동학과)가 '장애위험 조기 선별을 위한 부모용 한국영유아발달 선별검사도구 (KSIED-P) 개발'을 주제로 하여, 도구 개발의 과정, 구성요인,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두 번째 발표는 한국육아지원학회장이인 최일선 교수(경인교육대학교 유아교육과)가 '위험군 영유아를 위한 부모지원 자료 개발'을 주제로 진행하였다. 세 번째 발표는 김은설 선임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이 '장애위험 영유아 부모 요구 분석 및 지원 방안'을 주제로 하여 발달지연 영유아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양육 실태 및 요구 분석, 지원 방안 등을 발표하였다.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영유아보육학회 학술대회 공동세션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11월 24일(금) 오전 9시 30분 제주 메종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한국영유아보육학회 학술대회에 ‘영유아의 건강한 심리정서사회발달을 위한 대응’이라는 주제로 공동세션을 개최하였다. 본 세션은 영유아의 건강한 사회정서 발달지원, 가정의 사회정서발달지원, 보육교육기관에서의 협력, 장애위험영유아의 조기발견 등 최근 학계의 관심을 받는 주요 이슈들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김은경 동국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첫 번째는 김지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의 ‘아동의 사회정서발달 지원을 위한 정책적 제언’ 발표가 있었다. 그 다음은 최윤희 광운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학과 교수의 ‘영유아기 문제행동에 대한 최근 시각과 긍정적 행동지원’, 배성현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교수의 ‘보육현장의 장애위험영유아 실태와 정책적 대안’ 발표가 각각 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정효정 한국영유아보육학회장, 정정희 한국유아교육학회장, 김정연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집연합회장이 장애위험영유아의 부모와 보육기관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영유아 보육기관에 전문상담인력 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촉구하였다.



제5회 사회복지법제 연합포럼 공동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지난 12월 20일(수)에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사회복지혁신과 융합’이라는 주제로 「제5회 사회복지법제 연합포럼」을 공동 개최하였다. 육아정책연구소는 ‘아동기본법’ 세션을 주관하여 아동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고찰을 진행하였다. 이 세션은 (사)사회복지법제학회 윤찬영 회장이 좌장을 맡고,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차선자 교수와 육아정책연구소 김아름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아 진행되었다.

김아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두 번째 발표에서 ‘아동기본법 제정시 후속입법 개정’에 중점을 두어, 아동기본법 제정에 따른 아동법제 개편 및 고려사항, 아동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개정안 및 제정안 등을 제시하며,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다각적인 입법적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발표에 대한 토론은 굿네이버스의 고완석 팀장, 세이브더칠드런의 강미정 팀장, 한국법제연구원의 배건이 연구위원 순으로 진행되었다.



2023년 육아정책 및 사업제안 공모전 시상식

육아정책연구소는 2023년 11월 7일(화)에 「2023년 육아정책 및 사업제안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2023년 육아정책 및 사업제안 공모전」은 정책수요자(부모 및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창의적이고 체감도 높은 육아정책 신규 발굴을 위해서 기획되었다.

공모전에서는 총 32개의 정책이 제안되었으며, 그 중 9개의 수상작을 선정하였다. 시상식 후 수상자 총 7팀과 간담회를 통해 공모제안 배경과 취지에 대해서 공유하였으며 정책 실현방안을 토론했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국민비서내 육아알리미 운영, 소규모 어린이집 공유 프로그램 운영, 아빠 자녀돌봄 맞춤형, 의료보육거점센터 등 구체적인 정책 방안 등이 논의되었으며, 간담회의 참석한 김영미 부위원장은 수상한 발표 제안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검토 후, 일부 정책으로 실현 할 수 있는 방안들은 적극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2023 산후조리원 질 제고를 위한 컨설팅 사업」 수기공모전 시상식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지난 11월 30일(목) 오후 2시 컨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2023 산후조리원 질 제고를 위한 컨설팅 사업」 수기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시상식에는 최윤경 육아정책연구소 기획조정본부장을 비롯하여 원내 연구진, 보건복지부 현수엽 인구 아동정책관, 출산정책과 최영준 과장, 이진우 사무관, 백록담 주무관, 산후조리원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최우수상은 청라 산후조리원의 박명희 팀장이 수상했고, 우수상은 엠에스 여성의원 산후조리원의 박시현 건강관리책임자, 조이폴 산후조리원의 강영심 이사, 그리고 서귀포의료원 부설산후조리원의 허정열 수간호사가 수상하였다. 또한 장려상에는 더블유 산후조리원의 박서영 간호조무사, 미즈맘 산후조리원의 한옥희 과장, 이든포레 산후조리원의 김혜숙 원장이 수상하였다.



제4회 KICCE 육아정책 DATA 콜로키움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2023년 11월 14일(화) 오후 2시, 육아정책연구소 대회의실에서 「제4회 KICCE 육아정책 DATA 콜로키움」을 개최하였다. 본 콜로키움은 연구주제 발굴과 더불어 연구자들의 데이터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되었다. 장희선 부연구위원(아동권리보장원 아동정책평가센터)이 ‘아동권리보장원 구축 패널 소개 및 협력방안’을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발표자와 참석자들은 행정데이터와의 결합을 통한 활용 방안 및 정책사업 대상 패널 연구의 가치와 특징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